10강 정신분석과 자본주의 2

(1교시)

◆ 흐름들의 통접과 자본주의

※ 학습목표
자본주의를 통해 흐름들의 통접을 이해한다.

▲ 화폐체제분석과 인간주의
지젝은 화폐를 주인기표와 비교하면서 라캉의 정신분석이 마르크스의 자본 분석과 구조적으로 일치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것은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의 핵심을 놓치거나 무시한 것입니다.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이 겨냥하는 것은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자본이지, 상품교환의 '구조적 필연성'(?) 속에서 출현하는 화폐가 아닙니다. (기표-상품) 교환의 구조에서 화폐체제의 출현은 전제군주체제(주인-기표!)의 초코드화를 설명해 줄지언정 유동하면서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자본을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자본주의를 화폐 군주주의(화폐 물신주의)와 동일화시키면서 지젝은 슬그머니 인간 주체의 자리를 화폐-상품 교환 체제의 외부(잉여)에 놓습니다. 주체를 기표(상품) 교환체계의 구조적 '결여'의 자리에 위치시키고, 잉여가치를 주체가 향유하는 잉여쾌락으로, 화폐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서 주체의 향유를 상징화하는 남근기표로 대응시킬 때 여기에는 인간이 주체의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인간은 향유의 주체, 소비의 주체로 생산됩니다. 그러나 생산에 참여하는 인간 주체의 모습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수학적 공리에 인간의 형상이 없는 것처럼 자본의 공리계에는 인간의 그림자도 없습니다.

▲ 흐름들의 통접과 자본주의의 출현
자본은 화폐의 형태를 띠지만 상품 교환 체계의 초월적 코드가 아니라 상품들의 흐름을 탈코드화, 탈영토화 시키는 돈입니다. 자본은 특정한 영토와 사회적 코드에 붙들려 있는 부동산과 동산, 생산물과 생산자들을 끊임없이 탈영토화하고 탈코드화하여 자신의 충만한 신체에 등록시킵니다. 자본은 욕망의 흐름들을 초코드화하는 것이 아니라 탈코드화 합니다.
처음부터 자본은 탈코드화된 흐름 위에서 탄생했습니다. "재산의 사유화에 의한 부동산의 흐름들의 탈코드화, 거대한 재산 형성에 의한 돈의 흐름들의 탈코드화, 상업적 생산의 발전에 의한 상품의 흐름들의 탈코드화, 재산상실과 프롤레타리아화에 의한 생산자들의 탈코드화"(334) 속에서 자본주의는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별적인 탈코드화된 흐름들은 자본주의 이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자본주의는 이런 개별적인 탈코드적 흐름들이 통접됨으로써 출현했습니다. 이미 존재해왔던 탈코드화된 돈과 노동력과 기술기계들이 생산(산업) 자본의 신체 위에서 통접됨으로써, "탈코드화된 모든 흐름을 생산에 포개어, 생산을 위한 생산을 생기게"(337) 함으로써 자본주의는 출현했습니다.

▲ 두 가지 화폐와 통화 저글링
상업자본이 상품들의 결연을 통해 코드적 잉여가치를 산출했다면 산업자본은 부자관계의 흐

www.artnstudy.com

름 속에서 상품들을 생산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음으로서 생명을 증식시키듯이 산업자본은 상품생산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식시킵니다. “자본주의기계는 자본이 결연자본이기를 그치고 부자관계자본이 될 때 시작된다. 자본은 돈을 낳고 가치가 잉여가치를 낳을 때 부자관계의 자본이 된다.”(340) 자본이 자본인 것은 그 속에 이미 자식의 배아가 존재하는 한에서입니다. 100만원은 10만원의 잉여가치에 의해서만 자본이 됩니다. 그래서 노동력의 교환가치로 받은 100만원의 임금과 상품생산에 투여하기 위한 노동력의 구매에 사용한 100만원의 자본은 전혀 다른 성질의 돈입니다.

전자의 돈 100만원은 교환관계 속의 화폐로, 앞서 설명한 것처럼 “무의미한” 지불이든 상품의 사용가치를 획득하기 위한 지불이든 어쨌든 상품 시장에서 욕구충족의 대가로 지불되는 돈입니다. 추상적인 교환가치를 물질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이 화폐는 구매와 판매의 분리를 지불의 형태로 지양하는 돈입니다. 이에 반해 후자의 돈 100만원은 노동력 판매 시장에서 노동력을 구매하는 데 사용되는 유동자본입니다. 노동력의 구매 수단으로 사용된 이 돈은 노동의 사용권을 함축하는 힘의 기호입니다.

전자의 화폐가 구매와 판매의 분리를 지양하는 지불수단인 것과 대응하여 이 유동자본은 (잉여)가치생산과 (잉여)가치실현의 분리, 즉 가치를 생산하는 시간과 (잉여)가치를 실현시켜 다시 화폐형태로 되돌아오는 시간 사이의 분리를 ‘신용’이라는 형태로 지양하는 융자금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본으로서의 100만원은 자본가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게 아니라 미래의 잉여가치 10만원을 담보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돈입니다. 부자관계의 자본이 지닌 잉여가치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본의 가치증식은 미래의 잉여가치를 담보로 한 융자의 흐름, 즉 신용통화에 의해 발생합니다. 마치 공 3개를 가지고 저글링을 하는 것처럼 나중에 실현될 가치(돈)를 위해 지금 들고 있는 가치(돈)를 허공 속에 던짐으로써 만들어지는 흐름(통화)이 자본주의적 화폐의 공리계입니다. 이 화폐 저글링을 하는 기관이 은행입니다.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함으로써 통화의 저글링이 시작됩니다. 국가를 믿고 중앙은행에 의해 시작된 통화 저글링은 일반 은행들을 거치면서 규모가 커집니다. 중앙은행이 던진(발행한) 공(화폐)의 숫자가 증가하지 않더라도, 손에 쥐고 있는 공(지불준비금)의 숫자가 감소하더라도 저글링의 횟수, 즉 통화량은 증가합니다. 통화의 양은 금속이나 종이의 물리적 양이 아니라 회전의 수와 속도에 의해 발생합니다.

▲ 통화의 순환과 잉여가치

들뢰즈-가따리는 통화의 순환을 세 가지 국면으로 나눕니다. 먼저 통화 저글링의 시작 지점에서 만들어진 흐름(flux)이 있습니다. 통화의 흐름은 은행에 의해 “무로부터 창조”됩니다. “이 흐름은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지운 부채로서 창조”(353)됩니다. 즉 은행은 한쪽 손에 든 화폐(지불준비금)를 공중에 던짐으로써 스스로 “마이너스 통화, 즉 은행에 채무로 등기된 부채”를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부채냐 하면 공중에 던진 돈은 나중에 채워 넣어야 할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손으로는 “플러스 통화, 즉 은행이 보증하는 생산경제의 신용장”을 받습니다. 물론 은행이 발생시킨 통화의 흐름은 저글링을 계속 할 사람, 즉 자본가를 향한 것이지 이마트 가서 고기 사먹을 노동자를 향한 게 아닙니다. 자본가는 은행이 던진 통화(융자금)를 가지고 투자의 저글링을 시작합니다.

통화의 또 다른 양상은 환류입니다. 환류(reflux: 썰물, 간조의 듯)란 화폐가 상품의 형태로 되돌아갔다는 뜻입니다. 상품의 일반적 등가물로서의 화폐가 상품의 형태로 되돌아가는 곳은 교환의 장입니다. 시장에서 상품과 교환될 이 돈은 ‘융자금’이 아니라 ‘수입’의 형태로 노

www.artnstudy.com

동자의 월급봉투 속으로 들어온 돈입니다. 이 통화의 발생지점은 당연히 미래의 잉여가치를 위해 저글링을 시작한 자본가의 손입니다. 그 통화는 임금(가변자본)의 형태로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한 상품교환, 즉 소비의 흐름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 환류는 상품구매로 실현되기 때문에 자본가의 입장에서는 상품의 (잉여)가치가 실현되는 국면입니다. 환류의 끝에서 생산자본은 첫 번째 회전을 끝내고 새로운 생산을 시작합니다. 물론 '첫 번째' 회전의 '끝'이란 순전히 논리적인 시간일 뿐입니다. 현실에서 자본은 첫 번째 회전이 끝나기 전에 이미 두 번째 '흐름'을 발생시키고 두 번째 통화가 환류되기 전에 세 번째 순환을 시작합니다.
자본의 잉여가치는 통화의 '흐름'과 '환류'가 만나는 합류(afflux)의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상품의 차원에서 말하면, 자본가가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구매하여 생산한 상품이 상품시장에서 노동자의 수입(임금)과 교환되어 다시 자본가의 손에 화폐형태로 돌아올 때 그 돈은 최초 은행으로부터 받은 융자금보다 더 큽니다. 더 크지 않으면 은행은 융자를 해 줄 리도 없고 자본가는 투자를 할 이유가 없겠죠. 이렇게 증식된 가치가 잉여가치입니다. 다시 저글링의 비유를 들면 은행이나 자본가가 허공에 던진 공(돈)이 다시 돌아올 때 돌아온 공의 수는 처음보다 더 많습니다. 어떻게 하나를 던졌는데 두 개, 새 개의 공이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날까요?
표준적인 맑시즘에 따르면 공을 추가한 것은 노동자입니다. 자본가가 유동자본으로 구매한 '노동력'이란 상품은 다른 상품(생산수단이나 생산원료)과 달리 가치를 창출하는 특별한 상품입니다. 자본가는 자신의 노동사용권을 이용하여 자신이 지불한 노동력이란 상품의 가치(임금)보다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합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이 가능하려면 생산과정에서 노동력의 가치에 해당하는 공(필요노동)과 그것을 초과해서 생산된 공(잉여노동)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 둘을 분리할 수 있다면 노동자는 노동력의 가치만큼만 일하거나 추가로 발생한 가치만큼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본가는 당연히 자신이 지불한 것은 노동력의 가치(노동력의 재생산 비용)이지 노동(한 만큼)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을 어떻게 얼마나 사용할지 결정하는 것은 자신의 고유 권한이며, 가치 창출에서 노동의 역할보다 자본의 역할이 더 크다는 논리로 노동자의 임금 인상 요구에 맞설 것입니다. '계급투쟁'이 발생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 흐름의 속도와 포획

화폐 자체의 관점에서, 화폐의 힘은 상품과 교환될 수 있는 잠재력입니다. 그런데 화폐의 회전속도 즉 통화 속도가 크면 통화량이 증가하고 통화량의 증가는 다른 조건이 같다면 화폐와 교환할 수 있는 상품가치의 감소를 초래합니다. 노동력의 상품가치에 해당하는 화폐(임금수입)는 자본의 통화 속도에 포획되어 원래의 잠재력, 즉 원래의 상품교환 능력을 잃게 됩니다. 흐름의 잉여가치란 이렇게 자본의 회전 속도를 통해 노동자가 받는 수입의 잠재력을 빼앗음으로써 발생합니다. 이런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은 인플레이션을 이용한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통화를 더 많이 발행하면 화폐의 교환가치는 하락합니다. 이전에 100원 주고 샀던 상품을 200원 주고 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100원어치의 상품가치를 기대하고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한 노동자는 나중에서야 자신의 노동력이 실제로는 50원에 팔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명목임금과 실질임금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물론 통화량이 증가한다고 그 즉시 상품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증가된 화폐가 충분히 유통된 이후에야 하락한 화폐가치가 실현됩니다. 이와 같은 시간차는 잉여가치가 발생한 시점, 즉 착취가 일어난 시점과 잉여가치가 실

www.artnstudy.com

현되는 시점 사이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킨 시점이 잉여가치가 발생한 시점이고 물가상승의 시점이 잉여가치가 실현된 시점입니다. 착취는 잉여가치가 실현되기 전에 이미 일어납니다. 따라서 노동자는 자신이 갖지 못할 것(50원어치의 교환능력)을 빼앗긴 것입니다.

좀더 건전한 방법으로는 생산성의 증가에 따른 상품가치의 하락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생산성이 증가하면 단위 시간당 생산된 상품의 양이 증가하고 그것은 단위 상품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생산성의 증가는 노동의 협업과 분업, 기계의 생산 능력 향상, 기계적 흐름에 종속된 노동의 리듬, 자본의 규모 확대에서 오는 비용감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런 생산성의 증가는 상품의 사회적 평균 가치보다 낮은 가치(많은 생산량)로의 생산을 통한 상대적 이윤을 제공합니다. 이 상대적 이윤을 위해 자본가들은 더 많은 기계의 도입, 더 철저한 작업관리, 더 큰 규모의 확대재생산에 들어갑니다. 이와 같은 상대적 이윤을 둘러싼 자본가들 사이의 경쟁이 자본의 확대재생산을 추동하는 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산성이 증가하여 상품의 가치가 하락하면 노동자의 임금이 표현하고 있는 상품가치 역시 하락하게 됩니다. 생산성이 100%로 향상되면 100원의 임금은 더 이상 100원의 상품가치가 아니라 50원의 상품가치만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생산성의 향상으로 인한 상품의 가치하락이 가격하락으로 실현되기까지는 유통시간과 생산성 평준화의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노동자는 애초에 50원어치에 해당하는 상품가치를 착취당하고 나서 나중에야 자신의 100원이 50원어치의 상품가치밖에 안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 더 빡세게 노동한 것은 실은 자신의 노동력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 외에 상품의 사회 문화적 가치, 즉 상품의 코드적 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잉여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핸드폰을 사면 최소 4년은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1년만 되도 고장이 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유행이 지나서 더 이상 사회적 사용가치를 지니지 못하게 됩니다. 소비사회 속에서 사회적으로 코드화된 욕구에 종속된 노동자는 코드화된 소비를 통해 자신이 생산한 상품의 가치를 스스로 하락시킵니다.

www.artnstudy.com

10강 정신분석과 자본주의 2

(2교시)

◆ 자본의 잉여가치와 화폐흐름의 사유화

※ 학습목표
자본의 잉여가치와 화폐흐름의 사유화를 이해한다

▲ 흐름의 속도와 포획
그로 인해 100원어치의 사회적 교환가치를 받아 놓고도 정작 소비할 때는 (광고매체와 다양한 대중매체에 의해 사회적인 욕구의 코드가 변함에 따라) 그보다 낮은 교환가치밖에 실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기 수입의 교환가치를 떨어뜨린 것은 코드화된 소비욕구에 의해 이전 상품의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린 노동자(소비자) 자신이며, 잉여가치가 실현되는 시점은 자신의 소비욕구가 이전 상품의 가치를 하락시킨 시점, 이전의 상품가치로 표현된 임금수입보다 더 많은 통화를 필요로 하는 신상품에 손이 가는 시점입니다. 광고를 보고 TV 드라마를 보고 소비를 하는 것도 잉여가치를 발생시키는 생산활동의 일부입니다.
이처럼 자본의 잉여가치는 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의 속도, 자본의 회전 속도, 코드화된 욕구의 변환 속도에 의해 노동자의 수입이 가치 하락함으로써 발생합니다. 수입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잉여가치는 통화량이 증대하는 시점에서, 자본의 확대 재생산이 이뤄지는 시점에서, 이전의 상품이 시장에서 가치를 상실하고 신상품이 출시되는 시점에서 이미 발생하며, 물가가 상승되고 가치가 하락된 상품의 구매가 이뤄지는 시점에서 실현됩니다. 이 시간의 차이는 통화의 '흐름'이 발생한 시점과 통화가 '환류'되는 시점 사이, 즉 통화가 허공에 떠있는 동안에 발생하기 때문에 '비가시적'이며 '추상적'이며 '잠재적'입니다. 수입의 흐름을 충실히 따르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돈을 갈취 당하는 것입니다.

▲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와 자본의 극한
자본의 '흐름'과 수입의 '환류'가 만나는 '합류'의 시점에서 잉여가치가 실현된다고 할 때 그 시점은 시계나 좌표로 표시할 수 없는 극한(limit)입니다. 흐름은 환류되기 바로 직전에 새로운 흐름으로 전화하기 때문에 흐름과 환류의 통접은 산술적으로나 기하학적으로 표시될 수 없습니다. 자본의 흐름과 수입의 환류는 수학에서 극한(limit)이라는 개념이 의미하는 것처럼, 무한히 가까워지는 순간 새로운 벡터로 멀어집니다. 두 흐름의 통접, 즉 합류는 끊임없이 극한을 이동시킵니다. 마르크스의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이 함의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축적이 진행됨에 따라 가동되는 총자본에 비해 가변자본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성이 발생합니다. 잉여가치는 가변자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총자본에 대한 가변자본의 비율이 감소하면 투자한 자본에 대한 이윤의 상대적 비율 역시 감소합니다. 만약 이것이 자본주의의 필연적 법칙이라면 그 경향적 법칙의 끝에서 평균이윤율은 제로가 되고 자본주의는 망하게 되겠죠. 과연 그럴까요?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을 통해 마르크스가 말하고자 한 것은 자본주의의 필연적 멸망이 아니라,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를 상쇄하는 다양한 요인들, 노동착취도의 증대, 노동력 가치 이하로의 임금 인하, 불변자본 요소들의 저렴화, 상대적 과잉인구, 대외무역, 주식자본의 증

www.artnstudy.com

가 등이 자본축적의 운동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자본과 수입(가변자본의 화폐형태)의 비례관계, 즉 자본의 흐름과 수입의 환류 사이의 통접은 이처럼 산술적 법칙에 지배받는 게 아니라 극한에 가까워지지만 결코 닿지는 않고 새로운 극한으로 이동하는 미분적 비례관계 rapport différentiel에 있습니다. 수학에서 미분이라는 개념이 의미하는 것처럼 자본의 축적은 이전까지 진행되어온 경향의 산술적 평균에 의해서가 아니라 매 극한마다 새로운 힘의 방향(속도)을 낳는 미분 비에 의해 진행됩니다. 불행히도(?) 자본주의는 자본축적의 일반적 경향에 의해 멸망하지 않습니다. 미친 듯이 극한을 이동시키는 탈영토화, 탈코드화가 자본의 운동 양태입니다. 탈영토화된 자본은 국경을 넘어 값싼 임금의 흐름을 포획하고, 과학과 기술의 코드들을 자신의 흐름에 종속시켜 새로운 상품(의약품, 지식정보 상품, 첨단무기)을 개발하고, 전쟁과 약탈과 기아로 파괴된 주변부 국가의 시장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탈영토화된 자본의 미친 듯한 속도는 수입의 환류 속도를 훨씬 앞지르며 통접의 잉여효과를 극대화합니다.

▲ 미분 비의 적분과 재영토화, 재코드화

자본의 잉여가치가 코드가 아니라 공리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은 사회적, 법적 코드나 초월적 권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추상화된 두 흐름의 미분 비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러나 미분 비는 오직 적분(integration)에 의해서만 구체적 양을 갖습니다. 자본의 잉여가치는 추상적 공리에 의해 발생하지만 그것을 현실화하는 것, 즉 미분 비를 적분하는 것은 통화의 흐름 자체가 아니라 국가와 가족과 같은 낡은 영토들과 고풍스러운 코드들입니다. 국가의 보증이 없으면 중앙은행은 통화를 발행할 수 없고, 국가간의 경계가 없으면 자본의 흐름이 포획할 값싼 노동력과 상품 시장도 없으며, 국가의 전쟁과 약탈이 없으면 과잉된 자본과 상품을 처리할 방법도 없습니다. 자본의 영토에는 국경이 없지만 잉여가치의 영토에는 국경이 있습니다. 자본은 탈영토적 흐름을 만들지만 자본의 잉여가치는 재영토화를 통해 실현됩니다. 자본의 흐름이 세계화되고 있는 오늘날 더 높은 국경과 더 강력한 국가주의가 동시에 형성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통령을 왕처럼 여기고 민족(국민)을 대지처럼 여기는 낡은 초코드화와 코드화는 자본의 추상적 공리계와 대립하기는커녕 자본의 잉여가치를 실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자본에게 가족은 무엇일까요? 가족은 단순히 원시 사회체의 친족과 전제군주체제의 왕족 및 하부의 생산공동체를 재활용한 작은 영토가 아닙니다. 자본주의에서 가족은 탈-사회화된 기관입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가족은 사회적 생산의 바깥에 놓입니다. 가족은 사회적 장 내부의 영토적 기관이 아니라 탈영토화된 기관입니다. 가족이 사회적 장 외부에 놓이는 것은 가족의 가치 하락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터전 자체가 가족에 일치s'appliquer할 수 있는 조건"(391)이 됩니다. 가족은 사회적 장 외부에서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기관인 동시에 "자본의 심상들" 즉 자본, 토지, 노동력의 인격화된 이미지의 복제-이미지(simulacre)를 제공하는 표상의 소우주가 됩니다. 노동력의 재생산 기관으로서나 자본의 심상들을 가족적 표상(아버지-어머니-나)에 일시키는 표상 생산의 기관으로서나 가족은 사회적 영토로부터 분리된 기관입니다.

이 탈영토화된 기관의 기능은 사회적 생산의 부분대상인 인간을 사회로부터 분리시켜 사적 인간의 독립된 전체상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인간을 사회화시키는 기관이 아니라 사회적 생산의 기관-기계인 인간을 '탈-사회화'시키는 기관입니다. 가족이라는 '사적 영역'을 통해 인간은 사회적 욕망생산의 부품이 아니라 사회 이전에 사회와 마주 보고 있는 사적 인

www.artnstudy.com

간, 즉 '개인'으로 규정됩니다. 가족에 의해 인간은 원시사회나 전제군주체제에서 그랬던 것처럼 집합적 신체를 구성하면서 사회적 장에 투여되지 않고 개체로 완결된 인간, 즉 '개인'의 자격으로 자본의 추상적 흐름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와 동시에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나'라는 사적 인격을 통해 자본의 사회적 심상을 개인화합니다. "자본 씨, 토지 어머니, 그들의 아이 노동자"(392) 가족의 오이디푸스적 기능은 자본주의에 와서야 실현되는 것입니다.

▲ 흐름의 사유화와 똥의 사유화

자본축적의 추상적 공리가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자본주의의 탈코드화된 흐름이 갖는 사적 성격 때문입니다. 자본주의는 이렇게 탈코드화된 흐름들을 집합적으로 투여하지 않고 사유화(privatisation)시켰습니다. 탈코드화된 흐름들을 사유화하는 기관이 가족이며 그 사유화의 작동기제가 오이디푸스화입니다. 그러나 흐름들의 사유화 이전에, 자본주의 이전에는 가족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흐름들의 사유화를 위한 모델은 무엇일까요? 항문입니다. "돈이 흐름들의 추상의 새로운 상태를 나타냈을 때와 동시에 사유화에 대해 모델을 제공한 것은 바로 항문이었다."(218)

프로이트는『성욕에 관한 세편의 에세이』(1905)에서 입 다음, 성기 직전의 성감대로 항문을 제시하면서 항문기의 대상으로서 똥이 갖는 다양한 상징적 가치(아이, 남근, 선물, 돈)에 대해 설명합니다. 항문과 똥, 똥과 항문, 항문기와 개인의 성격, 항문성애와 인색함, 깔끔함, 완고함과 같은 근대 부르주아의 전형적 성격의 관계에 대한 프로이트의 설명은 통화의 추상적 흐름과 사유화에 대한 상대적 진리성을 지닙니다.

입과 젖가슴의 부분적 관계와 항문과 똥의 관계는 다릅니다. 똥이 항문의 리비도적 대상이 되는 것은 그것이 항문 속에 축적되어 있다가 외부로 배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문은 똥이라는 외부의 부분대상과 '접속'됨으로써 리비도 에너지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똥은 유아가 외부 대상(엄마 아빠)에 대해 애정과 증오의 감정을 표현하는 상징입니다. 똥은 아이가 갖게 되는 최초의 사적 소유물입니다. 아이는 자기 똥을 축적했다가 한꺼번에 배출할 때 장 점막에서 느껴지는 자극을 쾌감으로 향유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자기 몸 속에 있는 이 사유물을 이용하여 타인에 대한 태도를 표현합니다. 똥은 "사랑하는 사람의 설득을 통해서만 포기하는 신체의 일부분"이자 "애정의 증거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자발적 선물"[1]이며 "그것을 보류함으로써 불복종을 표현할 수 있는"[2] 표현 수단입니다.

똥의 사유화를 통해 항문은 '나'의 발화기관이 되고 외부 대상은 '타인'이라는 발화 대상으로 인격화됩니다. 분리될 수 있는 부분대상으로부터 분리된 완전 대상으로서의 '인격체'가 형성되는 것은 이처럼 똥의 사유화를 통해서 이뤄집니다.

프로이트가 "자기가 맨 처음 떼어 낸 신체 내의 물질인 대변"이 "떼어낼 수도 있는 신체의 한 부분"[3]으로서 남근과 아기를 대체하는 표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할 때 그는 거세 콤플렉스의 최초 표상은 남근이 아니라 항문기의 똥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남근을 가진 아버지, 남근이 없는 어머니, 남근을 잃을지도 모르는 '나', 혹은 남근을 선망하는 '나'라는 오이디푸스 가족의 '인격'은 정확히 똥의 사유화와 상징화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

1)『성욕에 관한 세편의 에세이』,「항문 성애의 예로 본 본능의 변형」, 279쪽.
2)『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성욕에 관한 세편의 에세이 2. 유아기의 성욕」, 83쪽.
3)『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항문 성애의 예로 본 본능의 변형」, 282쪽.

www.artnstudy.com

▲ 자본의 신체와 항문, 그리고 화장실

화폐의 흐름을 사회적 몸체로부터 이탈시켜 사유화된 흐름으로 전환시킨 것은 누구였을까요? 그것은 국가가 아니라 사회체의 경계에 있는 화폐 거래자들이었습니다. 주로 해방된 노예로 이뤄진 이들 화폐 거래자들은 사회적 몸체로부터 분리된 천한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에 화폐를 가지고 돈을 버는 은행업은 더럽고 추악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똥'처럼.

더러운 돈을 거래하는 은행은 이렇게 사회적 몸체로부터 분리된 더러운 기관이었습니다. 사회적 몸체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은행은 사회적 코드나 제국적 초코드로부터 이탈한 화폐의 흐름을 사유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사회체의 항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뢰즈-가따리가 "사유화되어야 할, 즉 사회적 장 외부에 두어야 할 최초의 기관은 항문이었다"(217)라고 할 때 그것은 은행에 대한 설명입니다. 항문은 집합적으로 투여되는 <기관없는 신체>가 사유화될 때 즉 독립된 유기체를 형성할 때 입과 함께 가장 먼저 분화되는 기관입니다.

은행은 집합적으로 투여되는 사회적 몸체로부터 가장 먼저 분화되는 기관입니다. 은행은 사회체로부터 이탈한 돈의 흐름을 방출하고 외부의 흐름을 빨아들이는 입-항문기계입니다. 오늘날의 은행을 가만히 보면 그것의 항문성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항문처럼 통화(똥)를 만듭니다. 은행은 내부에 축적된 통화를 배출하는 데서 리비도적 에너지를 얻습니다. 은행은 통화의 방출에서 생산적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통화를 축적하기만 하는 은행은 병에 걸립니다.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통화를 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에 따라 '자본'의 흐름을 배출하기도 하지만 수입의 환류에 대해서는 굳게 문을 닫습니다. 자본의 흐름으로 방출된 통화가 산업의 물질대사를 거쳐 이자로 환류될 때 은행은 날름 입-기계로 돌변합니다.

자본의 충만한 신체는 항문(은행)으로부터 통화의 흐름을 공급받아 노동력의 흐름을 자신의 입-기계로 빨아들입니다. 자본의 재생산 체제에 빨려 들어간 노동력의 흐름은 자본의 항문으로부터 나온 수입(통화-똥)의 흐름으로 추상화되어 잉여가치와 함께 자본의 입으로 되돌아갑니다. 자본의 충만한 신체는 입-항문 기관밖에 없으며, 사람과 기계, 재화 등 사회체의 기관들을 항문에서 배출되어 입으로 되돌아가는 똥(통화)의 흐름으로 추상화시킵니다. 전제군주사회의 충만한 신체였던 국가는 똥(통화)의 방출을 보증하며 똥(통화)의 흐름을 영양분(잉여가치)의 흐름으로 전환시켜주는 부속기계로 전환되고 가족은 똥(통화)의 흐름을 사유화하고 그것에 인격적 표상을 부여하는 화장실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화장실에 앉아 항문에서 배출된 똥을 보며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듯 사유화된 인간(개인)이 자신의 수입과 은행잔고를 확인하면서 사회적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곳이 가족입니다. 물론 요즘은 화장실이 실내에 들어와 있지만, 가족은 사회적 몸체라는 집의 외곽에 있는 화장실-기관입니다. 화장실을 사유화한 것은 오직 전제군주뿐이었습니다. 전제군주는 화장실의 사유화를 통해 나머지 신민들의 공중 화장실을 초코드화했으며 처형당한 전제군주의 신체가 버려진 곳도 공중화장실이었습니다. "이 환류는 죽은 전제군주를 공중화장실에 나르고, 우리들을 모두 오늘날의 사적 인간homme privé이 되게끔 한 것이다."(316) 화장실의 사유화는 전제군주를 모델로 한 것이며 아버지-왕, 어머니-왕비, 나-왕자의 오이디푸스 가족이 형성된 곳은 항문의 배설기능으로부터 남근의 거세기능을 발견한 화장실이었습니다.

www.artnstudy.com